

## 金聖嘆의 詩, 시 속의 聖嘆\*

이승수(주저자)\*\* · 高波(공동저자)\*\*\*

### 〈차 례〉

1. 머리말
2. 생애, 一念遠劫의 관념과 두 왕조 체험
3. 시집, 『沈吟樓詩選』의 전승과 내용 개관
4. 눈길, 微生에 보내는 마음과 인간상의 두 모형 - 維摩詰과 陶淵明
5. 가족, 아내의 신음과 아이들 글 읽는 소리
6. 처세, 遺民 의식/經世 포부의 교차와 아이러니
7.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김성탄의 시집 『沈吟樓詩選』을 텍스트로 삼아, 시집의 전승 및 구성 등을 검토하고, 나아가 시에 담긴 시인의 내면과 행적을 조명한 결과이다.

입론의 토대로 그 생애의 대략을 먼저 서술하였다. 텍스트 이해를 위해 『침음루시선』의 편찬과 전승 경위, 편제 등을 개관하였으며, 행적과 교유의 범위와 경향, 그리고 사상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김성탄은 평생 쭉저우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불교에 깊이 경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은미한 눈길의 방향도 주목하였다. 김성탄은 작고 어린 것에 특별한 마음을 보냈는데, 이는 김성탄이 지녔던 고유의 정서이며, 소설과 희곡 비평에서 ‘작거나 보이지 않는 부분’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極美論 등으로 구현되었다. 역사 인물 중 維摩詰과 陶淵明을 동일시했다. 여기에는 각각 평등 불二的 대승 사상 지향, 왕조 교체기 遺民으로서의 시대 정체성이 함유되어 있다.

김성탄의 가문, 가족의 풍경도 살펴보았다. 김성탄은 번성한 가문의 일원이 아니었으며, 그나마 그 가문도 그의 유년기에 몰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탄의 가족은 아내와 둘 이상의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202100000003471)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딸, 그리고 아들로 구성되었다. 그의 가족에는 남달랐지만 집은 늘 가난했고, 아내는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려 집에서는 신음이 그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서 자녀들의 글 읽는 소리가 집안을 울리며 명랑한 기운을 자아내곤 했다. 김성탄은 독서인을 자처했고, 이런 태도는 딸 아들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왕조 교체의 시대를 맞이하는 내면의 진동도 검토의 대상이었다. 김성탄은 명칭 교체의 와중에서 강렬한 遺逸 의식을 견지하였지만, 여러 이유로 만년에는 出仕와 經世의 포부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칭송했던 황제의 명에 의해 국법으로 처형되는 아이러니의 희생자가 된다.

김성탄은 오랫동안 풍문 속 환상이나 서책의 저자인 우상으로 존재해왔다. 이 글은 풍문의 안개와 문자의 족림을 지나 일상의 생활인 김성탄을 만나, 숨 쉬고 말하며 웃고 웃는 그의 두 세 면모를 되살려본 것이다.

[주제어] 金聖嘆, 『沈吟樓詩選』, 懷疑 정신, 微生에 보내는 마음, 維摩詰, 遺民 의식

## 1. 머리말

이 글은 김성탄의 시집 『沈吟樓詩選』을 개관하고, 그 속에 나타나는 시인의 몇몇 모습을 정리하여, 역사 인물 김성탄의 형상을 빚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성탄은 독특한 비평으로 당대 문단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인물로 생존 시기부터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 그의 評點 비평은 雅와 俗 사이 높은 담장을 허물었고, 창작과 비평을 구획하는 경계석을 치웠으며, 글쓰기(문학)와 상업 출판을 아울렀다. 그가 평점을 더해 출판한 『水滸傳』(1641)과 『西廂記』(1656)는 한 시대 독서계를 풍미했고, 그 파장은 이후 200여 년 동안 줄어들지 않았다. 김성탄 식 글쓰기가 유행했고, 김성탄을 모의한 여러 평점본 소설이 널리 읽혔다. 한 시대의 학자들은 그의 글을 애독하여 김성탄의 책 한두 권쯤 갖추어지지 않은 집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sup>1)</sup> 김성탄 열풍은 조선에서도 매우 뜨거웠으니, 그 영향의 흔적이 오랜 시간 넓은 범위에서 발견되고 있다.<sup>2)</sup>

1) 王應奎(1683~1759), 『柳南隨筆』, “顧一時學者, 愛讀聖嘆書, 幾於家置一編…….”(孫中旺 撰, 『金聖嘆研究資料匯編』, 廣陵書社, 2007 23쪽)

2) 이러한 현상을 다룬 대표 논문 및 평단 소개한다. 韓梅, 『朝鮮後期 金聖嘆 文學批評의 受容樣相 研究』(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2); 정선희, 『조선후기 소설비평론과 문예미학의 발전-金聖嘆의 小說評批本 독서와 관련하여-』, 『어문연구』 35-1(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윤지양, 『江天閣鎖夏綠 所載 李載運의 문장에 나타나는 金聖嘆에 대한 인식』, 『대동한문학』 44(대동한문화회 2015). 하지만 해명된 것은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명망과 달리 김성탄 자신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누구나 ‘金聖嘆’<sup>3)</sup> 이름 석 자를 알았지만, 그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sup>4)</sup>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그의 마지막이 비참했고 사후 정황이 매우 어수선했기 때문이다. 김성탄은 1661년 신홍 왕조 청의 국법에 의해 참형되었고, 가산은 적몰되었으며 처자는 멀리 寧古塔<sup>2</sup>로 유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비평 저술들은 대략 보존되었지만, 창작 저술들은 수습·정리되지 못한 채 방치·산실되었다. 行狀이나 傳, 제문이나 묘지문 등 생애를 담은 글도 지어지지 못했다. 국법으로 참형된 인물이니 그를 기리는 어떤 일도 공공연히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김성탄은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평점본 『수호전』과 『서상기』의 인기는 더 많아졌고, 명망과 실상 사이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졌다. 김성탄은 상상되었고, 개인의 소망과 집단의 이념 등이 투영되어 꾸며지고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천재 문인의 망실된 삶의 자리를 상상으로 채워 넣어 실현하기 어려운 자신들의 욕망을 대리 충족시키는 표상으로 삼았다. 이 과정을 거쳐 김성탄은 왕조가 바뀌자 이름과 호를 바꾼 강렬한 反淸志士, 제도권 교육과 과거제도를 조롱하는 반체제주의자,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유머를 구사하는 초인으로 거듭났다. 이러한 김성탄이 태어나고 유통되는 영역은 그가 사랑했던 稗說이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화상 김성탄을 사랑했으며, 그 김성탄은 사실로 굳어졌다.

김성탄은 20세기 들어 잇단 연구를 통해 실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형체가 한층 분명해졌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의 흐름 속에서 시 읽기로 김성탄의 형상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이 논의로 김성탄 이해가 한 치 깊어지고 반響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3) 문헌과 연구자에 따라 嘆과 歎이 혼용된다. 이 글에서는 ‘嘆’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4) 梁章鉅(1775~1849), 『歸田瑣記』, “今人鮮不閱三國演義, 西廂記, 水滸傳, 卽無不知有金聖嘆者, 而皆不能道其詳.”(孫中旺 편, 앞의 책, 29쪽)

## 2. 생애, 一念遠劫의 관념과 두 왕조 체험

김성탄의 생애와 행적에 대해서는 20세기 이후 꾸준히 논의되어왔는데, 21세기에 들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보고되면서 최근 관련 논의가 급증하고 있다. 김성탄의 생애 관련 글 중 그 의의가 특히 두드러진 성과는 아래와 같다.

廖 燕(1644~1705), 『金聖嘆先生傳』, 『二十七松棠集』 권 14.

陳登原(1900~1975), 『金聖嘆傳』, 香港太平書局, 1935.

孫中旺 편, 『金聖嘆研究資料匯編』, 廣陵書社, 2007.

陸 林 편, 『金聖嘆全集』(6책), 鳳凰出版社, 2008.<sup>5)</sup>

陸 林, 『金聖嘆史實研究』, 人民文學出版社, 2015.

廖燕의 글은 김성탄 사후 얼마 안 있어 지어진 첫 번째 전기이다. 이 글은 이후 200여 년 동안 김성탄 이해의 기초 자료 역할을 했다. 陳登原의 책은 개별 사안에 상세한 주석을 다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항목이 100개나 된다. 적잖은 의문을 남겨놓기는 했지만, 이 책으로 김성탄을 감싸고 있던 안개의 많은 부분이 걷혔다. 진등원 이후 김성탄 연구의 대두는 陸林(1957~2016)이다. 그는 1990년대부터 죽기 전까지 30여 편의 김성탄 관련 논문을 발표했고 이들을 책으로 묶어냈는데, 여기에 김성탄의 생애와 교유에 관한 고증은 물론 김성탄 연구사도 망라되어 있다. 2008년에는 『김성탄전집』을 輯校 간행하면서 연보를 부록으로 실었다. 陸林의 성과는 최근 김성탄 연구 현황의 토대가 되었다. 이 절에서는 『침음루시선』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김성탄의 전기 대략을 살피려고 한다. 기존의 성과를 수용 하되 항목을 간결하게 추리고 그 의미를 해석하여, 인물의 입체적 재생에 주력할 것이다.

김성탄은 명말인 1608년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태어난 해가 알려지지 않았으며, 한때 민간에서 그의 생일이 文昌帝君의 생일인 3월 3일이라는 이야기가 유전되었다.<sup>6)</sup> 그의 생년이 1608년으로 추정된 해는 1936년이다. 그 근거는 『葭秋堂詩』(嵇

5) 이 전집의 제6책에 부록으로 육림이 작성한 『金聖嘆年譜簡編』이 실려 있다. 육림은 그 뒤로도 김성탄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事迹編年訂補』을 지었다.(『金聖嘆史實研究』 제4장 130~180쪽)

永仁)에 실린 김성탄 편지의 내용이였다.<sup>7)</sup>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20세기가 끝나가도록 김성탄의 생년은 물음표로 처리되거나 3월 3일로 소개되곤 했다. 그가 활동한 곳은 吳縣, 長洲縣인데 모두 오늘날 蘇州의 옛 지명이다. 살았던 마을은 樂橋 근처 憩橋巷으로 알려져 있는데, 海紅坊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연구자들은 김성탄의 섬세하고 분방한 성향이 晚明 시기 탐미와 저항을 기조로 하는 ‘吳中土風’ 속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단한다.<sup>8)</sup> 예나 지금이나 김성탄은 쭈저우의 사람이고, 쭈저우는 김성탄의 장소라 할 수 있겠다.

그 이름도 논란거리 중의 하나였다. 왕조 교체 후 采(이름)와 若采(字)를 각각 人瑞와 聖嘆으로 고쳤으며, ‘聖嘆’은 『논어』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廖燕의 말<sup>9)</sup>은 이후 별 의심 없이 통용되었다. 이는 김성탄을 신비화하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聖嘆’이라는 이름이 1644년 이전부터 빈번하게 사용되었음이 1993년 徐朔方에 의해 밝혀졌다.<sup>10)</sup> 그 출처 또한 『법화경』으로 추정되었다.<sup>11)</sup> 김성탄은 어려서부터 불교를 배웠으며, 『법화경』을 읽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sup>12)</sup> 李重華도 그를 ‘學佛人’ 식 자로 규정하였다.<sup>13)</sup> 여기에 김성탄은 ‘성탄’이 법호임을 언명한 바 있으며,<sup>14)</sup> 김성탄 벗들의 법호는 ‘聖’ 자 돌림이다. ‘聖嘆’은 불경에서 가져온 法號이지만, 왕조 교체 후 유교의 맥락에서 수용되었다는 陸林의 설명이 타당해 보인다.

김성탄의 가문에 대해선 알려진 바 없다. 대단하지는 않되 10살에 학숙에서 글을 읽을 정도의 경제력은 갖추었던 집안으로 추정된다. 김성탄의 유년 시절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최근 약간의 상상이 더해진 매우 과감한 추정이 시도되어 흥미를 끈

6) 張小芳·陸林, 『話說金聖嘆』(江蘇人民出版社, 2011), 11면.

7) 樂調甫(1889~1972), 『金聖嘆生年考』, 『華北日報』(1936).

8) 吳子林, 『金聖嘆與吳中文化』, 『浙江學刊』(2005.5).

9) 『金聖嘆先生傳』, “鼎革後, 絕意仕進, 更名人瑞, 字聖嘆. …… 或問聖嘆二字何義? 先生曰, 論語有兩‘喟然歎曰, 在顏淵爲歎聖, 在與點爲聖嘆. 予其爲點之流亞歟!”

10) ‘성탄’을 20대부터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제기되었는데, 논거는 아직 충분치 않다. 陳洪, 『滄海蠡德—陳洪自選集』(南開大學出版社, 2004), 223면.(陳蕾 논문에서 재인용)

11) 『譬喻品』, “汝等當知, 此三乘法, 皆是聖所稱歎.” 陸林, 앞의 책(2015), 58, 9쪽.

12) 『魚庭聞貫, 與邵蘭雪點』, “弟固不肖無似, 然自幼受得菩薩大戒, 讀過梵網心地一品.”(『김성탄전집』 제1책, 107쪽, 『연보』 11세 조); 『제육제자서상기』 권 7, 『酬簡』 평어. “聖嘆自由學佛, 而往往如湯惠休綺語未除.”

13) 『沈吟樓詩選序』, “願其人, 冥心學佛人.”(上海古籍出版社, 『清人別集叢刊』, 1979)

14) 評語唐詩 自序의 낙관 “易學人金仁瑞法名聖嘆述撰.” 陸飛, 『金聖嘆早年事探測—相關詩文讀解』, 『화남사범대학보』 2016년 제6기, 160쪽.

다. 陸飛는 『침음루시선』을 면밀히 분석하여, ① 김성탄은 쌍둥이였고, ② 원래 고향은 金墅였는데, ③ 8살 무렵 사고로 부모를 여의고 甯縣으로 이사했으며, ④ 이후 고모부이자 외삼촌에게로 입양되어 성장했는데, 그가 바로 韓住(貫華堂), 韓俊 형제의 아버지라는 것이다. 또 ⑤ 김성탄에게 授戒한 스승은 天雨法師이며, ⑥ 『제오제자서』 서문 3에서 말한 ‘大人’은 아버지가 아니라 고모부라고 주장했다.<sup>15)</sup> 이렇게 볼 경우 『孤兒吟』(5언 고시) 2수는 김성탄의 어린 시절 자화상이 된다.<sup>16)</sup> 제시된 해석만으로는 ③과 ⑤를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나머지는 그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유년기에서 주목할 건 매우 도전적인 ‘懷疑 정신’의 발아이다. 1641년 김성탄은 어린 시절을 회고했다. 여기 따르면 10살에 鄉塾에 들어가 관례에 따라 사서를 읽었는데, 뜻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런 글 읽기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동학에게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했다. 또 천하의 무수한 책들의 내용이 다 그 밤에 그 나물이라는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고 했다.<sup>17)</sup> 상업 출판 소설 서문의 발언이니, 여기에는 다소 자극적인 광고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발언 내용은 자못 파격적이다. 의문은 통념에 대한 도전의 출발이고, 관습을 파괴하는 최후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뒷날 김성탄이 구현한 혁신 비평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유년기 ‘逢佛殺佛, 無疑無悟’의 회의 정신에 닿게 된다.

20대의 김성탄에게서 보이는 두드러진 행적은 扶乩降神(또는 扶鸞請仙) 활동이다. 이는 도교 법술의 일종이다. 술사가 분향, 念呪, 誦經 등의 科儀를 통해 여러 신선이나 정령, 또는 죽은 이의 혼령 등을 강단으로 청하여 예언 점복, 가르침을 들으며,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며 凶厄을 피하여 길상으로 나이감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그의 강신 의례는 도교보다 불교의 성격이 짙다. 1627년 5월 김성탄에게 17살에 죽은 陳氏 소녀의 귀신이 들렸다.<sup>18)</sup> 이후 그는 10여 년 天台泐法師로 활동했는

15) 陸飛, 『金聖嘆幼年家難探測－相關詩文讀釋』, 『상해사범대학보』 제46권 제5기(2017).

16) 하지만 이 시는 큰집에 맡겨진 아이의 고초를 노래하고 있어 논자의 설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17) 『제오제자서』, 『서 3』, “吾年十歲, 方入鄉塾, 隨例讀大學·中庸·論語·孟子等書, 意愒如也·每與同塾兒竊作是語, 不知習此將何為者, 又窺見大人徹夜吟誦, 其意樂甚, 殊不知其何所得樂, 又不知盡天下書, 當有幾許, 其中皆何所言, 不雷同耶·如是之事, 總未能明於心.” 이 글은 열 살 된 아들 雍에게 주는 형식으로 씌어졌다.

18) 陳씨의 장제 등 당시 김성탄의 부계 활동에 대해서는 陳蕃, 『論金聖嘆扶乩降神活動及其影響』, 『南京師範大學文學院報』, 2020년 제2기 참조. 이 글에서는 또 ‘聖嘆’의 출전이 도교 진적 『黃泉救苦十齋轉經義』이며, 이 이름은 20대 扶乩 활동 기간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성탄의 부계 활동에 불교 성격이 짙고, 문헌 논거의 일치도가 높지 않아, 앞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데, 그 영향이 매우 컸다.<sup>19)</sup> 김성탄은 저승을 여행하거나 사자를 불러오는 일종의 사면[法師]이었던 셈이다.<sup>20)</sup> 김성탄의 비평에는 한 시대의 윤리와 법규에 얽매이지 않는 사면의 기운이 작용한다.<sup>21)</sup>

1641년(34세)과 1656년(49세)에 『第五才子書水滸傳』과 『第六才子書西廂記』를 간행했는데, 이는 김성탄 개인은 물론 동아시아 문학사에서도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당대 세평은 神과 魔, 극단으로 엇갈렸다.<sup>22)</sup> 歸莊(1613~1673)은 두 책을 각각 ‘倡亂之書’, ‘誨淫之書’라고 맹비난했다.(王應奎, 앞의 글) 董誥(1624~1697)도 김성탄을 극혐하여, 그가 화를 당한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sup>23)</sup> 이는 두 책의 인기와 영향력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독서계는 김성탄의 새로운 스타일 글에 열광했으며, 그러한 글 쓰기 방식과 출판이 널리 유행했다. 『수호전』이 널리 읽히고 집집마다 그 책을 구비하게 되었다.<sup>24)</sup> 이로써 하층 문학으로 간주되던 소설과 희곡 등이 일약 大雅의 마루에 오르게 되었다. 才子書 중 뒷 시대 책을 먼저 비평·간행한 것은 김성탄의 의중이 자 시대 변화의 징후이다. 만약 제일 제이 재자서(『초사』와 『장자』) 먼저 작업했다면, 뒤 시대 책까지 작업이 이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문학사의 의의 또한 대단치 않았을 것이다.

그 사이 1644년(37세)에 왕조가 바뀌었다. 4월 22일 산해관이 함락되었고, 25일 崇禎帝가 자진했다. 소식은 며칠 뒤 蘇州에도 전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강남에는 淸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했다. 이듬해 사정이 급변했다. 청군은 4월 25일 揚州를 점

19) 김성탄의 강신 경위와 활동에 대해서는 錢謙益(1582~1664)의 『天台勸法師靈異記』, 『初學集』에 상세하다. 이 글에는 1635년 6월 김성탄이 제자들과 함께 葉紹袁의 집에서 17세의 나이로 혼례 닷새 전에 죽은 그의 셋째 딸 葉小鸞의 귀신을 불러 대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의례의 성격과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면 부족으로 다 소개하지 못한다.

20) 이 시기 蘇州를 포함한 강남 일대의 불학 분위기에 대해서는 吳正嵐, 『金聖嘆與明清之際江南佛學－以月愛三昧說爲視覺－』, 『中山大學學報』 62권 295기(2022) 참조.

21) 당대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다. 王應奎, 앞의 글. “性故穎敏絕世, 而用心虛明, 魔來附之. 某宗伯『天台勸法師靈異記』所謂, ‘慈月宮陳夫人, 以天啟丁卯五月, 降於金氏之門者’, 即指聖嘆也. 聖嘆自爲其所憑, 下筆益機辨瀾翻, 常有神助.”

22) 徐增, 『送三耳生見唱經子序』(1660). “三耳生曰, 我見世之貶聖嘆者, 不但欲殺之, 而必使之入十八地之下而後已; 聞又見稱聖嘆者, 若恐形容之不盡, 而非推之到三十三天之上而不快.”

23) 『三岡識略』. “乃聖嘆恣一己之私見, 本無所解, 自謂別出手眼, 尋章摘句, 瑣碎割裂. 觀其前所列八十餘條, 謂自有天地, 卽有妙文, 上可追配風雅, 貫串馬莊, 或證之以禪語, 或擬之於制作, 忽而吳歌, 忽而經傳, 雜亂不倫.” 또 이렇게도 말했다. “讀聖嘆所批西廂記, 是聖嘆文字, 不是西廂記文字.” 直欲竊爲己有. 噫, 可謂迂而愚矣. 其終以筆舌實禍也, 宜哉!”(孫中旺 편, 앞의 책, 14쪽)

24) 昭槱, 『嘯亭續錄』, 『小說』. “自金聖嘆好批小說, 以爲其文法畢具, 逼肖龍門. 故世之續編者, 汗牛充棟, 牛鬼蛇神, 至士大夫家幾上, 無不陳水滸傳金瓶梅以爲把玩.”(孫中旺 편, 앞의 책, 28쪽)

령했고, 5월 16일 南京에 진입하면서 弘光 정권이 무너졌다. 윤6월 7일 薙髮令이 공포되었다. 문화 자부심과 저항의식이 강했던 쭈저우 문사들은 충격에 사로잡혔다. 김성탄은 이 와중에서 강렬한 遺民 의식을 견지했지만, 1660년(53세) 본인 글에 대한 순치제의 칭찬을 접한 이후 묘한 변화를 보인다. 가난으로 인한 오랜 생활고, 궁극적으로 출사를 지향하는 사대부 기질이 복합 작용했던 것이다. 기실 명조 멸망 이후 김성탄의 삶은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두 시구는 역사의 수레 위 김성탄의 움직이는 내면을 잘 보여준다.

이르길 뒤에는 다른 뒤가 없고	云無後在後
앞에도 다른 앞이 없다 하시네	亦無前在前
이 시간 이 광경이 소중하거니	此時此景應珍重
내일 내년 일일랑 의심을 말자	明日明年不用猜

위는 고약부 10행 「天行篇」의 5, 6구이다. 연구자에 따라 扶乩 의례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金仙에게 세상살이의 근심을 토로하자, 해결 방법으로 알려준 내용이다. 과거를 돌아보며 되짚거나 미래를 당겨 앞서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다. 아래는 왕조 교체 직후 작품으로 추정되는 7월 「除夜有感」의 尾聯이다. 병중에 이런저런 시름에 싸여 제야를 보내다가, 이제 곧 필 때화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 구절이다. 또한 미리 앞일을 걱정하지 말자는 다짐을 담았다.<sup>25)</sup> 두 구절 모두 순간이 곧 영원이며, 당장이 우주라는 ‘一微塵中含十方, 無量遠劫卽一念’(「華嚴一乘法界圖」)의 관념을 담고 있다. 이는 입버릇처럼 전생(신)과 후생(신)을 말하곤 했던 시간관의 반영적 표현이다. 김성탄의 사유는 여러 차원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의 질서 위에서 펼쳐지곤 했는데, 순간에 대한 이런 집착은 그가 떠올리기 끔찍할 만큼 고뇌에 휩싸여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고뇌를 헤아리는 것이 김성탄에게 다가가는 과정이다.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던 김성탄은 1661년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참형에 처해진

25) 참고로 두 편 시의 전문을 제시한다. 「天行篇」, “皇天與壽命, 而其勢頗延. 今夜是何處, 持憂問金仙. 金仙知我憂, 秘諭開靈篇. 云無後在後, 亦無前在前. 稽首辭大道, 吾將與之然.”; 「除夜有感」, “除夜去年愁裏過, 今年除夜病中來. 艱難世事皆如此, 金鐵身軀能幾回. 爆竹何辜催漏盡, 春風無賴逼梅開. 此時此景應珍重, 明日明年不用猜.”

다. 54세 때의 일이다. 2월 4일 吳縣의 제생 100여 명이 文廟에 모여 통곡하며[哭廟] 吳縣 현령 任維初의 학정을 고발했다. 그런데 2월 1일 순치제의 哀詔가 이르러 哭臨이 막 끝난 시점인 데다, 같은 해에 奏銷案과 通海案이 일어나는 등 강남 일대의 정국이 불안했다. 이에 巡撫 朱國治는 사안을 심각하게 파악, 주모자 11명을 즉각 체포하여 감금했다. 김성탄은 2월 5일, 체포된 사람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2차 哭廟를 주도했다가 4월 26일 구속되었다. 이어 江寧(南京)으로 압송되었고 7월 13일 三山街에서 참형에 처해졌다.<sup>26)</sup> 가산은 이내 적몰되었고, 가족은 18일 寧古塔으로 유배되었다. 옥중에서 지은 시문 몇 편이 전해진다.<sup>27)</sup>

김성탄의 시신은 제자 沈永啟(1621~1699)에 의해 수습되어 고향으로 옮겨졌으며, 무덤은 松陵 두 번째 保(보감제의 단위)에 조성된 것으로 전해진다.<sup>28)</sup> 이후 방치되었던 이 무덤은 同治 연간(1861~1875) 편찬된 『蘇州府志』(권 49)를 통해 세인의 관심으로 돌아왔으며, 그 소재지가 五峰山 博士塢란 설이 民國 연간(1912~1949)에 유행했다. 1925년경 『吳縣志』(1918) 편찬자 중 하나였던 吳蔭培(1851~1931)에 의해 西山塢로 옮겨져 다시 조성되었다. 李根源(1879~1965)은 1926년 3월 이곳을 찾아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여기 吳蔭培가 세운 묘비와 그 오른쪽에 있던 승려 阿覺의 무덤 등에 대한 소상한 정보가 담겨 있다.(『吳郡西山訪古記』)<sup>29)</sup> 그 사이 무덤과 옛 비석은 사라졌고, 현재 그 자리에는 1986년 吳縣에서 세운 문물보호단위 ‘金聖嘆墓’ 표지석만 서 있다.<sup>30)</sup>

26) 哭廟 사건과 김성탄의 죽음에 대해서는 빈번하게 반복 논의되어왔다. 그런데 최근 哭廟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한 논문이 보고되어, 세부 내용은 여기에 따랐다. 陸飛, 「關於金聖嘆與“哭廟案”的兩點辨正」, 『華南師範大學學報』, 2018년 제6기.

27) 『獄中見茉莉花』에는 경솔했던 언행을 후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3수는 5절에서 소개. 이밖에 패설에 실려 전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뒷 시대에 상상력이 더해져 부회된 것으로 보인다.

28) 시신 수습 경위는 『震澤縣志』(沈彤 찬)에 자세하고, 무덤에 대해서는 趙時揖의 강희 초년 증언이 전한다. 陸林, 앞의 책(2015), 275쪽.

29) 陸林, 「金聖嘆基本史實考論—沈吟樓詩選讀後記」史實探源與辨誤」,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2007). 이 글은 앞의 책(2015)에 다시 수록되었다.(675~694쪽)

30) 孫中旺 편, 앞의 책, 8쪽.

### 3. 시집, 『沈吟樓詩選』의 전승과 내용 개관

김성탄이 형장에서 죽고, 이어 가족마저 원방으로 유배되면서, 그의 원고는 산실 될 위기에 놓였다. 다행히 죽형 金昌의 힘으로 원고가 보존되었지만, 흩어진 詩篇 들에까지는 손길이 닿지 못했다. 시편들이 모여 책의 형태를 갖게 된 것은 사후 7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김성탄 사후 그의 막내딸 法筵(1652~1702)과 혼인한 沈重熙(1650~1722)가 흩어진 시들을 모아 초록해두었고, 그가 죽은 뒤 두 아들 培祉(1676~1743)와 培福(1682~1738)이 그 원고의 교정을 劉獻廷(1648~1695)에게 부탁하였다. 이렇게 하여 필사본 『沈吟樓詩選』이 만들어졌다. 李重華(1682~1755)의 서문(1727)에 출간 경위가 담겨 있다.<sup>31)</sup> 남아있는 『침음루시선』 첫 면에는 ‘吳趨金人瑞聖嘆著’와 ‘廣陽劉繼莊獻廷選’이 나란히 적혀 있다.

생전 김성탄의 최고 변호인이 徐增이라면, 사후 제일 포양자는 劉獻廷이다. 그는 북경 太醫院 太醫의 후손으로, 장자의 인품을 사모하여 繼莊이라 자호하였다. 1666년 부친 사후 吳縣으로 이주, 오랫동안 聖壽寺(院)에서 머물렀다. 재산이 많았지만 교유와 施舍에 탕진하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한다. 김성탄의 생전 벗들은 물론 아들 雍, 두 외손과도 교유하였다. 글을 읽고 그 사람을 흠모하게 되었으니, 그에게 김성탄은 빼어난 봉우리에 사는 신선이며 천 리를 환하게 비추는 보름달이었다.<sup>32)</sup> 劉獻廷의 이러한 김성탄 추송을 두고, 全祖望(1705~1755)은 그의 전기를 쓰며 크게 의아해했다.<sup>33)</sup>

곡절 끝에 책으로 묶인 건 다행이지만, 불행히도 이 시들은 그 뒤로 250년이 지나 서야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1959년 鄧之誠(1887~1960)은 김성탄 관련 글을 지으며 『침음루시선』을 소개했는데, 이 글은 1965년에야 발표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집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시집 전편은 1979년에야 영인 간행되어 세상에 공개된다.<sup>34)</sup> 김성탄 사후 317년, 李重華 서문 뒤 251년이 지난 뒤의 일이다. 여

31) 시선집 출간 과정과 체제 등에 대해서는 李姝雯, 『金仁瑞《沈吟樓詩選》詩歌流傳與編訂過程考略』, 『文教資料』 2014년 제11기 참조.

32) 『題唱經先生像』(『廣陽詩集』 권 하). “忽有仙人在別峰, 通身香氣似芙蓉. 碧天明月一千里, 獨上瑤臺十二重.”(上海古籍出版社, 『清人別集叢刊』, 1979)

33) 劉仲華, 『清初學者劉獻廷的遊歷與交友』, 『唐都學刊』 제29권 제5기(2013).

34) 『清人別集總刊』(上海古籍出版社, 1979). 여기에 대해서는 陸林, 앞의 책(2015)의 부록 중, 『鄧之誠對沈吟樓詩選的披露』(671~674쪽) 참조.

기에 逸詩를 수집하는 작업이 이어졌고, 그 결과는 2006년 간행된 전집에 반영되었다. 『침음루시선』의 공개를 기점으로 시 해석을 통한 생애 연구가 활발해졌다. 『침음루시선』이 진작 세상에 알려졌다면, 김성탄의 면모와 행적에 대한 억측과 상상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시 자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소략한 편이다. 洪克夷는 김성탄의 반봉건 정신을 높이 샀으며, 봉건사회의 하층 지식분자가 보여주는 動搖反復, 矛盾複雜의 한 전형으로 김성탄을 정의했다.<sup>35)</sup> 艾軍은 김성탄을 兩朝人의 전형으로 규정했으며, 즉흥의 진심 표백이 많아 심리의 모순이 자주 드러난다고 했다. 경물 묘사에서 드러나는 虛靜空疏함, 자기 조롱에 수반되는 골계와 유머를 특징으로 꼽았다.<sup>36)</sup> 劉勇剛은 入世와 出世의 모순 감정에 주목했는데,<sup>37)</sup> 이는 앞의 연구자들도 주시했던 특징이기도 하다. 鄧瑞는 ‘詩緣情’의 개념으로 해석을 시도했는데, 짧은 지면에 너무 많은 작품을 다루었기에 분류에서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sup>38)</sup> 시집 수록 개별 작품들에 대한 해제나 정밀한 주석 작업의 결과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침음루시선』은 분권되지 않은 필사본 1책으로 전해진다. 건륭 초년의 초본이다. 시들은 체재 별로 분류되어 있다. 여러 연구자가 체재 내 창작 시간순 배열을 언급했는데, 순서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많아 따르기 어렵다. 영인본 말미에는 俞鴻籌의 『讀後記』(1951)가 붙어있다. 제목 아래 ‘沈吟樓逸詩’와 ‘逸詩’가 표기된 작품이 많은데, 각각 沈重熙와 劉獻廷에 의해 수습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작품의 수는 283제 384수인데, 여기에 陸林 모은 일시 14제 16수를 더하면 297제 400수가 된다. 글씨 등으로 전하는 對聯은 제외하였다. 옛 시에 기대 지은 擬古詩가 27제 28수인데(고악부 제외), 그중 두보에 의탁한 시가 21제 21수나 된다. 또 李商隱을 모의한 시가 3제 19수에 달해, 김성탄의 애호와 시풍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sup>39)</sup>

시는 대체로 이해가 어려운 것들이 많다. 두보와 이상은 애호에서 짐작할 수 있는 정교한 句法과 난해한 用典 — 西崑體를 표방한 제목도 있음 —, 언어 관습에 얽매이

35) 洪克夷, 『從‘沈吟樓詩選’看金聖嘆』, 『杭州大學學報』 11권 1기(1981).

36) 艾軍, 『金聖嘆詩風初探』, 『贛南師範學院學報』 제5기(1990).

37) 劉勇剛, 『金聖嘆의 詩歌創作』, 『懷化師專學報』 21권 1기(2002).

38) 鄧瑞, 『金聖嘆詩學精神與創作實踐交叉研究』(遼寧師範大學 석사논문, 2008).

39) 김성탄의 두시 학습과 평해, 그리고 거기서 받은 영향에 대한 논문은 많다. 이상은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劉春景, 『論金聖嘆對李商隱詩的接受』, 『江蘇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2020) 참조.

지 않는 김성탄 특유의 개성 표현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매우 빈번하게 또 은미하게 사용되는 불교 문자도 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김성탄의 시에는 佛, 金仙, 僧, 受律, 諸天, 維摩, 偈, 伽佉, 梵香, 梵書, 萬法, 法師, 院, 上方, 西林, 金書, 蓮花, 大德, 空王, 方廣, 釋迦, 大士, 禪誦, 古寺, 下院, 打化天, 納衣, 緇流, 藥師, 遠公, 山門, 繩床, 獅子座, 仁壽, 天竺(書), 法輪 등 불교 문자가 난무한다. 연구자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처럼 단어로 드러나는 구절들이 아니라, 잠복해 있거나 변형된 표현들이다.

『침음루시선』은 김성탄의 교유 양상, 즉 사회생활의 너비를 가늠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시집에는 가족을 제외하고, 제목에만 70여 인물의 이름이 100회 남짓 등장한다. 근래 이들의 문집이나 저술이 검토되고, 각종 地志와 叢書 자료들이 조명되면서, 이들 인물의 실체와 김성탄과의 교유 양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분은 승려 또는 불교 인사이다. 아예 ○○(法)師로 표기된 10명 외에도, 내용으로 보아 승려로 간주되는 인물은 22, 3명, 등장 횟수는 38차례에 이른다. 이름 없이 ‘僧’으로만 표기된 경우를 더하면 비중은 더 높아진다. 이에 반해 관리로 분류되는 인물의 등장은 10명 16회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불교 친화의 성향에는 우선 개인의 관심과 기질이 반영되었겠지만, 왕조 교체 이후 쑤저우 지역 문인 사회의 탈속과 은둔 풍조도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산사를 배경으로 하는 禪機와 弄氣가 어우러진 시들이 여럿 있다. 아래 시에 그러한 풍격이 잘 나타난다. 김성탄은 종종 자신을 老僧이나 貧僧으로 불렀고, 산사 생활이나 산사에 대한 동경을 여러 번 드러냈다. 두 번째 시의 마지막 구절은, 수행에 몸이 쑤셔 불일도 없는 해우소를 일부러 다녀오는 태도에 대한 가벼운 농담이 담겨있다.

삼경에 삼점이라 중천에 달 떴는데  
상방과 하방 모두 시름에 젖었어라  
하방서 잠드는데 풍경소리 들리니  
상방도 아직까지 잠들지 못했구나

三更三點月中天  
上方下方同惘然  
下方方眠又聞磬  
方解上方還未眠

『효봉의 하원에서 묵으며[宿堯峰下院]』

사흘간 눈이 내려 문 앞이 고요한데	門前不動雪三日
종소리 이따금 씩 창으로 드는구나	窗裏時聞鐘一聲
선정에 들어있기 스님도 괴로우니	應是高僧禪定苦
짐짓 몸을 일으켜 경내를 걸으시리	衲衣私起暫經行

「병중에 해 스님에게 그리움을 부치다[病中寄懷解師]」

『침음루시선』을 개관하면 김성탄 행적의 지리 범위도 파악할 수 있다. 400여 수 시에는 天池山, 寶林寺, 虎邱山(7회), 曉峰山, 鄧尉山, 玄墓山, 姑蘇臺, 寒山寺, 慧慶寺, 西山, 松陵, 南朝寺, 青芝山, 吳淞, 慈雲寺 등 창작 또는 상항 장소의 지명이 들어간 경우가 있다. 모두 蘇州 지역에 있었던(있는) 지명들이다. 간혹 南京, 長壽寺(太倉), 成都, 西施故村 등 쑤저우 외의 지명이 들어있기도 한데, 누군가를 전송하거나 외부의 소식을 듣고, 또는 간절하게 동경하거나 꿈에서 체험한 장소이다. 김성탄은 한 번도 쑤저우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다. 그의 유일한 여행은 1661년 남경으로 압송된 것이다. 이 여행은 김성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쑤저우를 떠난 것인데, 끝내는 시신으로 돌아와 오늘날까지 쑤저우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sup>40)</sup>

#### 4. 눈길, 微生에 보내는 마음과 인간상의 두 모형 - 維摩詰과 陶淵明

공자는 옛 시 300수를 한마디로 간추리면 ‘思無邪’라는 세 글자로 간추렸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여러 의미의 공분모를 간추리면 “거짓이 없는 마음”이 될 것이다. 공자는 또 인격 수양의 첫 단계를 ‘興於詩’라고도 하였는데, 이 또한 쉽게 풀면 “거짓 없는 말에서 마음을 일으킴” 정도가 될 것이다. 김성탄도 시를 가리켜, “한 구절의 참말일 뿐. 詩非異物, 只是一句眞話.”(『與顧掌丸』)라고 정의했다. 시는 자기도 모르게 천지의 기밀을 발설하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시인 내면의 바닥을 드러내기도 한다. 마음의 작용을 잘 이는 사람이 아니면 시를 제대로 읽지도 짓지도

40) 이러한 사실에 주목한다면, 陸林이 모은 逸詩 중 黃山에 있는 正一派 도교사원을 읊은 「題太素宮」, 陝西省에 있는 繡嶺 등반 체험을 담은 「登繡嶺」은 그 진위가 의심된다.

못한다는 것이다.<sup>41)</sup> 이를 전제로 이하 시를 근거로 김성탄의 인간상을 그려보고자 한다.

살펴 사람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많다. 그가 사귀는 사람, 그가 좋아하는 물건, 그가 물러나고 나아가는 행태, 그가 읽는 책 등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을 알 수 있다. 시 또한 마음에서 나와 언어로 드러나는 것이니 사람을 알 수 있는 매우 유력한 근거이다. 可以觀, 시를 살펴 알 수 있는 것도 많다. 우리는 시를 통해 풍속과 정치, 사물과 역사를 알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잘 알 수 있는 건 누군가의 마음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시를 ‘言志’로 설명해온 이유이다. 우리는 시를 살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sup>42)</sup> 그중에서 유심히 봐야 하는 것 눈길의 방향과 착점이다. 이 절에서는 세 눈길을 살펴 김성탄의 마음을 건져보고자 한다.

첫째, 작은 것에 보내는 눈길과 그 바탕의 고운 감성이다. 김성탄은 뒷날 7, 8세 무렵의 두 기억을 떠올린 적이 있다. ①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며 기와 조각을 손에 쥐고 던져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만두려 하면 또 이 정도 일도 못 하나 우스워, 한동안 손에서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던져 넣고는 돌아와 크게 울었던 일이다.<sup>43)</sup> ② 두보의 시구 “벗들은 한 번 곡을 마치고, 말 타고 작은 성 떠나가누나[親朋盡一哭, 鞍馬去孤城].”(『送遠』)을 읽고 열흘이나 가슴이 답답하여 고생했던 일이다.<sup>44)</sup> 두 사례는 김성탄의 감성이 유년기부터 일종의 活物論에 입각해 있으며, 세상의 크고 작은 이별 사연에 과민했음을 잘 보여준다.

41) 李重華, 『沈吟樓試選序』, “自古讀書作文, 識爲尙至. 韻語一道, 尤貴神解. 以韻語緣情而生, 非直說理, 而理固苞含周通, … 固知非神解者, 不能讀, 不能作矣.”

42) 서거정, 『四佳文集』 권 6, 『桂庭集序』, “詩言志. 志者, 心之所之也. 是以讀其詩, 可以知其人.”; 채제공, 『변암집』 권 56, 『書耳溪洪尙書良浩燕雲雜詠後』, “夫詩者, 性情之出也. 觀其詩, 可以知其人, 亦可以知其世.”

43) 李商隱의 『曲池』에 대한 평어이다. 『選批唐才子詩』, “某嘗憶七歲時, 眼窺深井, 手持瓦片, 欲竟擲下, 則念其永無出理; 欲且已之, 則又笑便無此事. 既而循環摩挲, 久之久之, 瞥地投入, 歸而大哭. 此豈宿生亦嘗讀此詩之故耶? 至今思之, 尚爲惘然!”

44) 『小題才子書』 중 顧贇의 『四飯缺適秦』을 설명하는 가운데 언급한 것이다. “幼讀杜子美‘親朋盡一哭, 鞍馬去孤城’, 不知何故, 便胸前十日作惡.” 김성탄은 이를 7, 8세 때의 일로 기억하였으며, 이 뒤에 아래 구절을 덧붙였다. “조금 자라 『남화경』의 ‘그대를 보내는 자 물가에서 돌아온다[送君者自厓而返].’ 구절을 읽고, 무슨 까닭인지 눈 귀가 멀었으며, 병도 있고 술에 취한 듯 어지러운 상태가 100일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았다. 이제 늙어서도 이 구절을 읽으면 더욱 그런 상태에 젖어든다.”

잎 아래 파란 벌레 위에는 서리 오니	葉底青蟲葉上霜
예 이른 미물의 삶 참으로 맘 아파라	微生到此最堪傷
두터운 땅 높은 하늘 힘 모두 빌려다가	願將厚地高天力
천추 만년 오래도록 널 살게 하고 싶네	令汝千秋萬歲長

「작은 목숨[微生]」

창작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 시는, 이념과 윤리에 굳지 않고 관습과 생활에 매몰되지 않은, 김성탄의 섬약하여 살아있는 내면을 잘 보여준다. 서리가 내리는 가을 어느 날, 시인은 서리 앉은 나뭇잎 아래 아직 살아있는 파란 벌레를 발견하고, 연민의 감정에 사로잡힌다. 이어 할 수만 있다면 온 천지의 기운을 다 가져와 천년만년 살게 해주고 싶다고 한다. 아이디어온 이런 감상은 유한한 생명의 세계에 대한, 근원을 거슬러 가면 찰나의 자기 삶에 대한 연민의 발로이다. 김성탄의 독서와 비평(글쓰기)이 그 시대까지의 인습을 깨고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힘 중의 하나는, 작은 것들에 보내는 관심과 시선, 그리고 과감한 은유적 연결이다.

같은 맥락에서 —특수 경우이긴 하지만— 1635년(28세) 6월 葉紹袁의 집에서 泐法師의 신분으로, 혼례 닷새 전날 17살에 죽은 그의 셋째 딸 小鸞의 귀신을 불러 주고받은 대화도 눈길을 끈다. 김성탄은 授戒를 위해 평소의 戒行을 확인한다며 十善을 어겼는지를 물었다. 이에 小鸞은 10번의 물음에 모두, 어긴 적이 있다며 7언 대련의 형식으로 답변한다. 아래는 처음부터 차례로 不殺生, 不偷盜, 不邪淫의 계율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이다.

소옥을 불러 꽃의 벌레를 없앴고	曾呼小玉除花虱
경환을 시켜 꽃잎도 지게 했지요	也遣輕紈壞蝶衣

파릇한 새 잎은 뉘 집 나무였으며	不知新綠誰家樹
괴리 맑은 소리 어디서 들려왔던가	怪底清簫何處聲

저물녘 거울 속의 고운 눈썹 훑쳐보았고	晚鏡偷窺眉曲曲
봄 치마에 짝지어 노는 새를 수놓았어요	春裙親繡鳥雙雙

小鸞의 답변이지만 일종의 가탁이고, 7언 대련의 형식을 지녔으니, 김성탄의 시로 보아 무방하다. 소란은 대답한다. 시녀를 불러 꽃의 벌레를 잡게 하고 꽃잎을 다치게 한 것이 생전의 살생이다. 어느 해 봄날 남의 집 뜰의 나무에 돌아나는 새잎에 마음을 빼앗겼고, 또 어디선가 들리는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니, 이것이 생전 소녀의 도둑질이다. 거울 속 자신의 고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치마에 한 쌍 다정한 새를 수놓은 것이 생전의 邪淫이다. 나머지 7번의 답변도 다 이런 식이다. 엄밀히 보면 틀린 말이 아니지만, 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는 미숙한 유년기의 감성이 아니다. 김성탄이 눈길을 보내는 극미 세계는 대개 극대 우주와 연결되어 있거나 심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의 비평 기저에는 이런 연결과 의미 작용이 깔려 있는데, 이는 세계관의 반영 또는 작용이라 하겠다.<sup>45)</sup>

나머지 두 개의 장면은, 역사 인물에 자신을 투영하거나, 그 인물을 끌어와 자기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그 인물의 행적과 시대, 고뇌와 지향 등은 고스란히 시인의 것이 된다. 우리는 시에 드러나는 바, 그가 좋아하는 역사 인물 또는 그 인물을 드러내는 방법을 살핌으로써,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김성탄에게 있어 그런 역할을 하는 두 인물은 維摩詰과 陶淵明이다,

유마힐의 원래 이름은 Vimalakīrti로 석가모니의 재가 제자이다. 유마힐은 출가하지 않았지만 출가 제자들이 모두 어려워했을 만큼 법력이 높았다. 방편으로 자기 몸을 병들게 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법설을 베풀었다. 이때 제자들이 각양 이유를 들어 석가의 문병 지시를 사양하고, 마지막 문수보살만이 문병하러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유마경』에 실려 있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고, 중생이 나으면 보살도 낫는다.”<sup>46)</sup>는 말, 不二法門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해보라는 요구에 끝까지 침묵을 지켜 문수보살의 찬사를 받아낸 일<sup>47)</sup> 등이 특히 유명하다. 유마힐의 사상은 ① 현세가 정토이고, ② 자비 실천이 중요하고, ③ 만물은 평등하며, ④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대승불교 시대의 특징이다.<sup>48)</sup> 김성탄은 자신이나 벗들

45) 김성탄이 문장 비평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작은 부분, 또는 생략된 부분의 중요성이다. 이 생각은 『제육재사서상기』의 「酬韻」 평어에서 논리적으로 서술되었다. 김성탄 비평의 극미론에 대해서는 丁利榮, 『金聖嘆美學思想研究』(武漢大 박사학위논문, 2007), 122~130면 참조.

46) 「文殊師利問疾品」. “衆生病, 則菩薩病. 衆生病愈, 菩薩亦愈.”

47) 「入不二法門品」. “時維摩詰默然無言. 文殊師利歎曰: “善哉! 善哉! 乃至無有文字語言, 是真入不二法門.”

48) 여기에 대해서는 鳩摩羅什 한역(406), 조수동 국역, 『유마경』(지만지, 2008), 「해제」.

을 유마힐로 지칭하곤 했다. 『침음루시선』에는 그 이름이 7번 등장한다.

시 지으면 구절마다 유마힐이요	作詩句句維摩詰
아침마다 취하기는 맹자의 진국이라	中酒朝朝孟子醇
벼루를 깨뜨려서 술상의 다리 삼고	擗去硯台支榻腳
좁 배를 마름하여 두건을 만든다네	多裁葛布制疏巾

「시를 짓다[作詩]」

삼경에 석 접이라 밤공기 차가운데	寒夜寒更三點三
유마경 다 읽은 뒤 경연을 그만둔다	淨名讀盡閉經筵
어린아인 잠들고 향불도 사위어서	啞童子睡沉香息
깊은 칠후 감실의 부처를 보는다	觀佛深深髹漆龕

「추운 밤[寒夜]」

위 시는 구절마다 고사를 활용했는데,<sup>49)</sup> 나머지 세 구절의 내용을 포괄하며 지휘하는 주제는 첫 구절에 언명되었다. 자신이 짓는 시는 구절마다 유마힐이라 함은, 재가 수행자인 거사 신분에서부터 不二法門의 평등사상, 그리고 중생 구제의 보살심을 구현하였음을 뜻한다.<sup>50)</sup> 김성탄은 韓住에게 보낸 시에서, 그를 유마힐에 견주며 눈앞에 가득한 중생을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 망망하다고 했다.<sup>51)</sup> 아래 시에서 淨名은 유마힐의 다른 이름이다. 한겨울 밤이 깊도록 『유마경』을 읽은 뒤에야 독서 자리를 걷고, 또 불도 향도 다 꺼진 칠후 속에서 부처를 만나는 광경을 그렸는데, 이러한 생활 속 독실한 수행자 유마힐이 곧 김성탄의 자화상이다. 김성탄은 종종 자신을 재

49) 承句의 孟子醇은 공자의 뜻을 가장 잘 이어받은 사람은 孟子라는 뜻이다.(韓愈, 「讀荀子」) 결구의 내용으로 미루어 轉句의 榻은 술상[酒榻]으로 풀이하였다. 결구에는 도연명이 술이 익을 때마다 갈긴(葛巾)을 벗어 술을 걸러 마신 뒤에 다시 썼다는 도연명의 고사가 담겨 있다.(『晉書』, 「陶潛傳」)

50) 심사 과정에서 維摩詰를 王維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다. 왕유는 유마힐을 좋아하여 자기 호를 摩詰로 삼았을 정도였다. 고려해야 할 견해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 1구와 2구가 對句에 가까운데 —이런 문제의식에서 ‘詰’을 2구의 ‘醇’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렇게 본다면 孟子의 짝으로는 유마힐이 더 어울린다. 王維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겨둔다.

51) 「貫華先生病寓寒齋, 予亦苦略不已」. “客有維摩詰, 身非妙吉祥. 高秋同得病, 清晝坐數床. 用乳新開禁, 消香未有方. 衆生滿眼是, 何以濟茫茫.”

가 수행자로 지칭했으며, 한밤중 오랜 절에 혼자 앉은 모습으로 그리곤 했다.<sup>52)</sup>

김성탄이 자아를 투영한 또 한 인물은 陶淵明(365~427)이다. 『침음루시선』에는 모두 94명의 역사 인물이 나오는데 그중 20여 명의 위진 시기 인물이 54회에 걸쳐 등장하며, 그중 도연명은 19회나 출연한다.<sup>53)</sup> 도연명의 歸去來와 桃花源, 그리고 慧遠과의 교류는 매우 인기 있는 주제였으며, 소동과 이후 문사들의 도연명 애호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sup>54)</sup> 도연명은 여러 차례 慧遠과 나란히 등장하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김성탄이 특별히 사랑했던 면모이며,<sup>55)</sup> 이는 유마힐 애호와도 관련이 있다.<sup>56)</sup> 하지만 이 시기 김성탄이 받아들인 도연명은 앞의 면모들보다도 왕조 교체기의 처신이 두드러지게 짙었다. 도연명이 귀거래한 해는 405년이었고, 이로부터 5년 뒤에 東晉이 멸망하고 南朝 宋이 들어선다. 김성탄의 도연명은 두 왕조의 교체 와중에서 진퇴를 고민하고 처신을 숙고했던 인물이었다.<sup>57)</sup>

김성탄은 왕조 교체 직후 상원절에 『上元詞 擬唐崔液』 2수를 지었다. 1645년 정월의 강남은 아직 청조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았지만 왕조 교체의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진 불안한 상태였다. 두 수 노래에는 燈會가 화려한 가운데 잡극 공연과 청루의 환락이 요란한 원소절 풍경이 담겼다. 노래 끝에 이런 후기를 붙였다.

이건 남에게 할 말은 아니다. 눈에 가득한 게 이러하니 살아갈 방도가 뻑뻑하여 비단 같은 말을 지어 마음을 풀어본다. 옛날 陶潛은 “때로 글을 지어 마음을 달래며 의지를 보였다고 했으니”,(『五柳先生傳』) 나의 이 노래도 돌아가신 신종의 마지막 해의 일이 아니라! 처사는 불행하여 핏과 宋 교체기에 살았고 나 또한 변혁의 시기를 만났으니, 소리 내어 울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시에게 무슨 죄가 있으랴만, 남에게는 부치지 못하고 그저 동지와 한 번 보려고 한다.<sup>58)</sup>

52) 『月夜獨坐』. “水晶宮殿寂無人, 古寺疏窗月一輪. 獨鶴林中偏自去, 亂螢牆外故來頻.”

53) 盧潔, 『金聖嘆詩歌中的魏晉人物探析』, 『陝西理工大學學報』 제38권 제1기(2020). 이는 桃源이나 三徑 등 관련 고사까지 헤아려 포함시킨 것이고, 陶潛·陶淵明·淵明·陶令·陶公 등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13회이다.

54) 여기에 대해서는 위안상페이 지음, 김수연 옮김, 『도연명을 그리다』(태학사, 2012) 참조.

55) 『失題』. “餓驅陶令叩山門, 慧遠慈悲出酒樽. 佛說花開非有相, 青天鶴過並無痕. 說經夜夜鷄三唱, 圓夢朝朝水一盆. 笑殺昔人圖冥報, 枉將絲綫繡平原.”

56) 『爲廝山題菊花』其 2. “木落霜高天地哀, 陶家偏報有花開. 老僧結習從來盡, 便約維摩去看來.” 이밖에 도연명은 曾點, 林逋, 慧遠과도 짝지어 나온다.

57) 盧潔, 『論金聖嘆詩歌中的陶淵明』, 『江蘇科技大學學報』 제19권 제2기, 2019.

앞뒤로 남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하여 조심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문맥 상 눈에 가득한 것도, 원소절의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라 발설하기 어려운 세상 형편으로 읽힌다. 풀과 宋의 교체기를 살았던 도연명과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하여, 처신과 표현이 모두 어려운 상황을 말한 것이다. 밑줄 부분의 해독이 어렵다. 神廟를 神宗으로 본다면, 신종 말년은 1620년이니, 그 시절 김성탄이 13살의 나이에 이런 시를 지은 셈이다. 이렇게 보면 어린 시절 지은 시를 가져와 국명의 위기 속 슬픈 원소절 풍경을 말한 것이 되는데,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도연명이 『五柳先生傳』을 지은 시점은 東晉(317~420) 말기 392년으로 추정된다.) 노래 속 분위기는 화려하고 즐겁지만, 시절과 시인의 마음을 고려하면 그 안엔 슬픔이 가득하니, 杜牧의 『泊秦淮』를 떠오르게 한다.

후토가 심고 길러 이 나무 남아있고	后土栽培存此樹
상천이 유배 보내 이 사람 있었도다	上天謫墮有斯人
의지를 바로 세워 秦 봉호 안 받았고	不曾誤受秦封號
기꺼운 마음으로 풀의 유민 되었어라	且喜終爲晉逸民
날 찬데 세 줄기 길 눈만이 쌓여있고	三徑歲寒唯有雪
여섯 해 눈물 속에 봄날을 못 만났네	六年眼淚未逢春
그대를 사랑하여 함께 살고픈	愛君我欲同君住
똑같이 미쳐버린 두 몸이러라	一樣疏狂兩個身

「도연명이 소나무를 어루만지는 그림에 적다[題淵明撫孤松圖]」

「귀거래사」의 구절인 “撫孤松而盤桓”을 표현한 그림에 적은, 도연명과 소나무를 나란히 두어 상찬한 시이다. 그림 속 소나무가 진시황이 태산에서 봉선을 거행할 때 五大夫 작위를 내린 그 나무가 아니고, 도연명이 끝내 세 왕조(南朝 宋)에서 벼슬하지 않은 사실을 짝 지워 절로 주제가 드러나도록 했다. 눈만 쌓여있는 세 갈래 오솔길의 전원은 그림의 풍경이면서 김성탄의 처지이고, 여섯 해 동안 봄을 만나지 못했

58) “此非道人語。既滿目如此，生理逼側，略開綺語，以樂情抱。昔陶潛自言，時制文章自娛，頗示其志，身此詞，豈非先神廟末年耶！處士不幸，丁晉宋之間，身亦適遭變革，欲哭不敢，詩即何罪，不能寄他人，將獨與同志者一見也。

다는 말은 명나라가 멸망한 지 6년이 지난 해의 작품임을 알려준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 시인은 우회하지 않고, 자신과 도연명이 같은 처지에 놓인 같은 마음을 지닌 똑같은 사람임을 직절하게 토해낸다. 김성탄은 晉宋間 도연명이 되어보기도 했고, 도연명을 明清 교체기 자기 자리에 두기도 했던 것이다.

김성탄의 인물 형상을 간추리면 미물에 애정의 눈길을 보내며 시대의 변화에 당황하는 유마힐과 도연명이었다. 이밖에 김성탄은 두보를 강렬하게 흠모하여 문득 成都에 가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기도 했고,<sup>59)</sup> 평생 열복한 사람은 두보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sup>60)</sup> 하지만 이는 존중하고 열복한 것이지, 자신과 동일시한 것이 아니기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 5. 가족, 아내의 신음과 아이들 글 읽는 소리

현재 김성탄의 가문과 가족을 알 수 있는 근거로서 傳狀 碑誌의 글은 남은 게 없으며, 김성탄이 가문이나 부모 등을 전면으로 거론한 글도 전해지지 않는다. 새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그의 생장 환경과 내력은 알 길이 없다. 연구자들은 평문과 시에 제시된 지극히 파편적인 언급으로 몇 가지 사실을 추정한다. ① 그의 가문은 대단하지는 않았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다.<sup>61)</sup> ② 하지만 김성탄의 유년기에 갑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났으며, 형제들은 흩어져 고통을 겪었다.<sup>62)</sup> 그렇다면 두수의 시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시점에서 그려진 바 큰집에 맡긴 아이의 피죄죄한 모

59) 「病中，無端極思成都，憶得舊作，錄出自吟」. “葛肆垂簾新雨霽，酒壚眠客亂花飛。餘生得到成都去，肯爲妻兒一灑衣。”

60) 「苦客投詩」. “關門對雨坐焚香，到地垂簾孟夏長。庭草春深迷石井，客詩投滿沒繩床。老夫泛愛仍依舊，心力衰微却異常。若問藥山遮眼法，生平唯服浣花堂。”

61) 김성탄은 10살 전후 학숙에 들어가 글을 읽었는데 소년 주인을 섬기던 蒼頭가 있었고(『제오제자서』, 「서 3」, 56회 총비), 물에 할머니로부터 玉鉤를 받았으며(같은 책, 56회 평어), 집안에 曹植의 글씨가 새겨진 銅鏡과 陳搏의 그림이 있었다고 한다.(같은 책, 47회 총비)

62) 시 「念師弟」에서 8살 시절을 회고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이제껏 우리 형제 어긋나 있네[一自耶娘爲畏物，至今兄弟並差池].”라고 하였다. 또 『제오제자서』 48회 顧大嫂가 감옥에 갇힌 친척 解珍 형제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장면에 “나는 나이가 어렸어도 가족들의 주음을 겪어 혼자일 때가 많았으니 …[我年雖幼，而眷屬凋傷，獨爲至多，驟讀此言，不覺淚下].”라는 평어를 달았다. 또 50 회에서는 “천하에 어머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읽으면 눈물을 참을 수 없다[天下豈有無母之人哉，讀之其能不淚下也].”는 평어를 두 차례나 달아, 그의 처지를 기늠하게 한다.

습, 형과 형수에게 구박당하는 장면 一 빗질도 못한 채 머리에 부스럼이 가득하고, 얼굴엔 칙 자국이 얼룩져 있으며 옷 위에는 이가 스멀거린다. 또 밤중에 여우로부터 닭을 지키지 못하면 닭 신세가 되리라는 폭언을 듣는다 一은, 김성탄의 유년기 자화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sup>63)</sup>

김성탄에게는 최소한 두 명의 남자 형제와 한 명의 누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침음루시선』에는 「念舍弟」 외에도 아우를 떠올리며 지은 시 1수, 아우에게 답으로 보낸 시 2수가 더 있는데, 모두 같은 인물로 보인다. 그중 한 수에서 “진나라 적 郗超와 王珣이 뛰어났지만, 우리 형님 셋째 아우 더 기이하다.”고 했으니, 김성탄은 세 형제 중 둘째였을 것인데, 형에 대한 언급은 더 보이지 않는다. 김성탄은 형제에 대한 자부가 강해, 자기 집이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다고 했다.<sup>64)</sup> 형제의 재능이 경제상의 빈곤함을 채우고도 남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아우 가족은 멀리서 끼니 걱정을 하며 유리하고 있다.<sup>65)</sup> 빈한한 형편은 김성탄이라고 다를 바 없었으니, 그저 이 혹독한 시련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며 막연하게 자위할 수밖에 없었다.<sup>66)</sup> 이 밖에 태어난 지 이레 만에 죽은 외조카 사연을 담은 「外甥七日」이란 시가 있어 누이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김성탄이 언제 누구와 혼인하여,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다만 남은 시를 통해 그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매우 다정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아내와 관련한 시를 보자. 『침음루시선』에서 아내를 대상으로 한 시로 판단되는 작품은 「婦病」 2수를 포함, 「貧婦吟」, 「割肉餉老妻」, 「閨怨」 등 5수이다. 이밖에 「鴛鴦誦」은 짝지어 다니는 한 쌍의 원앙을 그린 시로, 뽀뽀한 연애편과 연꽃 사이 그윽한 곳을 원앙의 사랑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다. 김성탄의 부부관 또는 아내에 대한 생각이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67)</sup>

63) 「孤兒吟」 2章. ① “孤兒非媿生, 安望嘗媿羹. 自不勤梳沐, 乃欲頭削平. 唾涕面上繪, 蟻虱衣外行. 爺娘忍心死, 誠哉累阿兄.” ② “野狐無仁義, 中宵入雞棚. 嫂驚雞亂叫, 樓上槌床聲. 兄嫂一齊罵, 雞死汝亦並. 孤兒眼迷離, 夢娘裁花繡.”

64) 「十六日, 三弟崖先, 手劄並詩, 率答二絕」 2. “髯珣超群又絕倫, 大哥三弟更奇人. 人家只道我家富, 這樣貧來未是貧.”

65) 「憶舍弟」, “舍弟西風裏, 流離數口家. 近聞棲水泊, 托庇在天涯. 火食何由得, 兒童那不嘩? 何須逢盜賊, 多恐化蟲沙!”

66) 각주 61) 시의 其 1. “貧僧永與舍親違, 年老身孤心事微. 昨夜夜寒寒殺後, 蜜蜂蝴蝶滿堂飛.”

67) 이러한 생각은 小史(弟子인지, 書童을 가리키는지 미상)이 혼인을 축하는 시에도 잘 드러난다. 「小史婚 小史, 翻也. 去年婚, 未有詩, 今補作」. “花裏秦宮豔, 窗中碧玉微. 天桃初巧笑, 蛺蝶早雙飛. 定是同

이 새의 이름을 무엇이라나	此鳥何名氏
수컷은 윈, 암컷은 양이라네	雄鴛雌曰鴛
짜지어 맑은 물 찾아와서는	雙雙來玉澈
둘이 함께 연못을 돌아다니네	兩兩轉金塘
잎들은 겹겹으로 환락 금침 되어주고	葉密成歡被
꽃들은 그윽하여 화촉 밝은 신방이라	花深亦洞房
천 년 만세가 지난다 한들	千秋與萬歲
어찌 잠시도 잊을 수 있나	那得暫相忘

하지만 김성탄의 부부 생활은 이렇게 이름답지는 못했던 듯하다. 살림은 늘 가난했고, 아내는 병들어 있을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시의 내용이 김성탄의 실상을 반영한다는 전제 아래 그 정황을 살펴보자.

해를 이어 아내 병 낫지 않으니	婦病連年月
입고 있는 옷들도 온전치 않네	襟裾不復全
자녀를 대함에는 엄정하여도	降嚴隨子女
돌아서면 비너도 풀어버리지	背眼棄釵鈿
한낮에도 머리맡엔 쥐가 다니고	晝鼠驕遊枕
향렴에서 벌레가 기어 나오네	春蟲化出窟
신음소리 차마 듣지 못하여	叻叻聽不得
애뜻한 웃음만 지어 보이네	一笑當相憐

「아내의 병[婦病].」

해를 넘기며 앓는 병인지라 몸이 바짝 여위어 옷을 입어도 볼품이 없다. 자녀들을 대할 때는 애써 단정한 차림새를 지키지만, 아이들이 눈 밖으로 벗어나면 풀썩 주저앉아 비너를 풀어놓는다. 그마저도 힘겹기 때문이다. 기운 없이 누워있기만 하니 쥐들도 사람을 겁내지 않고, 화장한 지 오래라 향렴에서 벌레가 생길 정도다. 아픈 사

람의 정황이 남김없이 그려졌다. 아내가 끙끙거리는 소리는 차마 듣기 어려운지라, 눈이 마주치면 열은 웃음으로 애써 고통스러운 신세를 달랠 뿐이다.

시 속의 아내는 대개 이런 모습이다. 병이 오래니 신음은 습성이 되었다. 지아비는 무능하고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 가난해도 몸을 쉬일 수 없고, 병을 숨기고 일하느라 몸이 더 상한다. 시인은 그게 모두 자기 탓이라며 괴로워한다.<sup>68)</sup> 아내는 원래 봄바람 속 들꽃처럼 젊고 아름다웠다. 하나 생계를 꾸리느라 머릿도 제대로 빗지 못했고, 자기가 늙어가는 줄도 모르고 손마디가 닳도록 베를 짜고 또 짠다.<sup>69)</sup> 병은 한 해 한 해 깊어갔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최소한 열네 해나 되었다.<sup>70)</sup> 김성탄은 그런 아내를 婦德의 상징인 孟光에 견주었고, 염주를 짚어 돌리다가 문득 섬뜩한 느낌에 고기를 사서 귀가하기도 했다.<sup>71)</sup> 김성탄의 집은 고달프게 생계를 꾸리느라 몸이 아픈 아내와, 아내의 신음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게 집안 풍경의 전부는 아니었다.

가난한 선비에게 무엇이 있나  
아이들 소리 집에 가득하다오

貧士何所有  
兒女一屋聲

「가난한 선비의 노래[貧士吟],」

김성탄의 집은 자녀들의 소리로 가득한 곳이기도 했다. 김성탄에게 1632년에 태어난 아들 雍과 1651년에 태어난 딸 法筵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 사이에 자녀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한 정보는 없다. 다만 만년에 지은 시 중 「병중에 딸들이 달 구경하는 것을 보고 불러 창문을 열게 하고는 달을 바라보며 관화를 떠올렸다[病中見諸女玩月, 便呼推窗一望, 有懷貫華]」로 보아 딸은 최소한 둘 이상이었으며, 이 딸들은 만년의 김성탄 곁을 지켰던 것으로 보인다. 또 21세기에 김성탄의 시로

68) 「婦病」. “婦老周旋久, 呻吟入性情. 貧窮因諱疾, 井臼且傷生. 夫子漸衰暮, 兒曹全未成. 百端寒熱裏, 誤汝一身嬰.”

69) 「貧婦吟」. “貧婦如野花, 亦向春風好. 千計求晨炊, 梳頭只草草. 織麻復織麻, 麻多織未了. 不知美容顏, 竟向機中老.”

70) 「閨怨」. “湖洲鏡子淨於天, 照病臨愁十四年. 銅亦命中無福蔭, 不教一遍得鮮妍.”

71) 「割肉餉老妻」. “舍南舍北侏儒死, 年尾年頭德曜齋. 正掐數珠驚指動, 槁碯拔劍早歸來.” 해석이 쉽지 않은 시이다. ‘侏儒死’는 東方朔의 고사(『한서』 권 65)에 따라 “장우들은 죽도록 배가 부르다 侏儒(飽欲)死”로 풀이했다. ‘正掐數珠’는 염주를 돌리는 행위로 보았는데, 전거가 충분치 않아 오독의 여지가 있다.

수습된 『無題』(5언 고시 32구)도, 만년의 김성탄이 남편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딸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즈음 10살이 넘지 않았던 法筵 외에 다른 딸이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김성탄은 딸과 아들 가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 『제오재자서』(1641)의 「서문 3」은 10살 때 일의 회고로 시작하는, 10살 아들 雍에게 주는 형식의 글이다. 아버지는 아주 꼭진하게 문장의 법도를 설명한다. 이 아들은 글을 터득하기도 전에 시를 읊조리곤 했는데, 김성탄은 시가 자연스러운 天機의 발로임을 전제하면서도 혹시 법도를 잃을까 걱정되어 시를 고쳐주기도 했다.<sup>72)</sup> 남경에 수감되어 죽음을 기다리며 아들에게 시 한 수를 지어주었는데, 아들이 讀書種子이며 제대로 된 學道人이라고 했다.<sup>73)</sup> 죽기 직전에도 누군가에 書樓 아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sup>74)</sup> 김성탄은 자기 부자의 정체성을 문인학사로 규정했던 것이다. 김성탄이 처형된 뒤 아들 雍은 영고답으로 유배되었고, 뒷날 돌아와 아버지의 글 일부를 정리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대로 크게 문명을 날리지는 못했다.

김성탄의 딸 사랑은 유별나서 사람들의 핀잔을 들을 정도였다. 어떤 일을 앞두면 딸의 의견을 들었고, 군주가 유능한 재상의 도움을 받듯 딸에게 의지했다.<sup>75)</sup> 막 뛰어 놀기 시작한 딸의 눈만 보아도 웃음이 났고, 눈썹은 모든 시름을 풀어주었다. 다소곳이 앉은 모습도, 밖에서 뛰어노는 모습도, 날렵한 몸맵시를 자랑하며 다락에 뛰어 올라가는 모습 어느 것도 사랑스럽지 않은 게 없었다.<sup>76)</sup> 딸에게 보내는 김성탄의 눈길에는 따스함과 호뭇함이 그득하다.

72) 「改兒子詩吟此」. “詩自何人造, 天機忽蕩成. 至今無字句, 空裏出音聲. 童子興殊異, 晨朝篇已盈. 得題隨屬草, 多恐失章程.”

73) 「與兒子雍 吾兒雍, 不惟世間真正讀書種子, 亦是世間本色學道人也」. “與汝爲親妙在疏, 如形隨影只於書. 今朝疏到無疏地, 無著天親果宴如.”

74) 「臨別又口號 遍謝彌天大人, 謬知我者」. “東西南北海天疏, 萬里來尋聖嘆書. 聖嘆只留書種在, 累君青眼看何如” 이 시에서 아들을 부탁하는 ‘彌天大人’은 陸林에 의해 計百 周令樹(1634~1688)로 비정되었다. 다만 당시 周令樹의 나이가 28세로 金雍보다 2살이 적었던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

75) 「無題」. “說是我愛女, 青眼異衆嬌. 既當世故熟, 又復慧心調. 百凡聽壽畫, 相倚若顛天. 吾素破此說, 俗見總難消. …” 이 시는 21세기 필적에서 수습한 것으로 전집의 『침음루시선』, 『輯佚』에 실려 있다. 시의 후반부는 남편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다.

76) 「女兒曲」. “女兒初蕩漾, 春日復優柔. 秋水真宜笑, 輕蛾詎解愁. 薰香籠袖坐, 開戶弄春遊. 自說腰肢軟, 君看上翠樓.”

어여쁜 막내딸이 지는 봄 아까워서	左家嬌女惜餘春
질은 잎 바랜 꽃잎 가지를 꺾었구나	剩碧殘紅采折新
두서넛 꽃송이는 날렵한 조황후요	數朵輕身趙皇后
한 가닥 꽃가지는 창백한 이부인이라	一枝善病李夫人
늙은이 아침이라 마음은 흥겹다만	老夫早起雖乘興
백발은 꽃 꽃가에 맞지가 않는구나	白髮斜簪已不倫
잘 자리럽, 뒷날 다시 이날이 되면	珍重他年臨此日
아버지의 이 애타한 마음 알게 되리라	見爺滿腹是車輪

「늦봄 아침에 앉아 있는데, 막내딸이 꽃을 꺾어 머리에 꽂으라기에  
고마운 마음으로[暮春早坐, 小女折花勸簪, 謝之].」

또한 만년에 지은 것으로, 어느 시와 같이 구절구절 전고가 많다.<sup>77)</sup> 어느 아침 어린 막내딸이 꽃가지를 꺾어와 아빠 머리에 꽂아주려 한다. 늦은 봄인지라 꽃잎은 바래가고 잎의 녹색이 질은 가지이다. 꽃송이는 여전히 날렵하지만, 꺾인 가지는 벌써 시들시들 한다. 어린 딸 하는 짓이 마냥 예뻐 일순 기분이 고조되었지만, 곧바로 늙고 병든 자기 백발과 꽃이 어울리지 않음을 자각한다. 이 아이를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시인은 아이가 잘 자리주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생각에 잠긴다. 뒷날 다시 (자신은 이미 세상에 없는)이 계절이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그리워하고 있었지) 알게 될 것이라고. 머지않은 자기 죽음과 이별이 감지되는, 하여 詩識으로 읊히기도 하는, 老父와 小女 사이의 고운 풍경이다.

김성탄은 부모의 죽음으로 불우하게 자랐고, 가정을 꾸린 뒤에도 가난에 시달렸다. 집에는 가난한 살림을 도맡은 병든 아내의 신음과, 마음을 다해 가르친 아이들 글 읽는 소리가 가득했다. 아내에게는 늘 미안했고, 자녀들을 보는 마음도 애잔했다. 그의 시에는 그런 아내와 자녀가 종종 함께 등장한다. 1641년 김성탄의 가족이 도연명의 처자마냥 마주 보고 주러있을 때 승려 無動이 쌀을 보내왔다. 그러자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듣고도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아내는 술을 씻으며 고마움을 말했다.

77) 1구의 左家嬌女는 左思의 시 「嬌女」에서 가져온 것으로 어여쁜 소녀를 의미한다. 趙皇后와 李夫人은 한나라 때의 황후이다. 수나라 楊廣의 「喜春遊歌」에 “輕身趙皇后, 歌曲李夫人.”이란 구절이 있다. 8구는 한나라 악부시의 구절 ‘배 안에서 수레가 간다 腹(腸)中車輪轉’을 활용한 것으로, 누군가를 간절하게 그리워한다는 뜻이다.

다.<sup>78)</sup> 王伊가 된장과 식초를 보내오자, 굶주리던 아이들은 안 보이게 침을 흘렸고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눈썹을 찡그렸다.<sup>79)</sup> 상업 출판으로 한 시대에 문명이 높았음에도, 김성탄 가족이 그토록 가난에 시달린 이유가 의아하다.

그럼에도 이들 가족 사이는 무척이나 다정하고 애뜻했던 것이 느껴진다. 밖에서 영락한 신세에 낙심하여 집으로 돌아오면 자녀들이 다투어 모여들곤 했다.<sup>80)</sup>

## 6. 처세, 遺民 의식/經世 포부의 교차와 아이러니

김성탄이 살았던 시대는 명칭 교체기였다. 그는 두 왕조에서 각각 36년과 17년을 살았으니, 사회 인식이 눈뜨는 청년기 이후는 두 왕조에서 거의 똑같은 세월을 보낸 셈이다. 유학을 공부하여 인식의 바탕에 중화 의식과 삼강 이념이 깔려있는, 여기에 문화 자부심이 특히 강했던 蘇州의 전통 문사에게 청조의 성립은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다. 더구나 청조는 처음부터 만주 식 변방령을 내려 사람들을 압박했다. 김성탄은 이러한 압박 앞에서 절망했지만 비교적 일관되게 유민 의식과 태도를 견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성탄은 내면으로 완강한 저항하는 한편, 復明의 가능성이 사라진 현실에 절망하기도 했다.<sup>81)</sup> 수사의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두세 작품만을 살펴본다.

원림의 요즘 사정 묻지를 마라

休問園林近若何

꽃과 버들 시절 이미 다 지나갔네

柳期花事已全過

말벌은 애벌레들 남김없이 잡아먹고

胡蜂取盡青蟲子

78) 「辛巳大饑，無動惠米，誌謝」，“先生奇策不堪論，亭午清齋水一盆。彭澤妻孥相對餓，鷺山主伴自稱尊。叩門無故聞兒笑，洗釜當知說爾恩。羊角叔牙成市道，此心容易向人言。”

79) 「道樹遣人，送醬醋各一器」，“籬豆畦蔬一例遲，瓶空罍倒四鄰知。正留僧飯水淘盃，驚得公書唾滿頤。饑子背人先染指，老妾報我只攢眉。無鹽三月東坡急，汲水求薪鬧晚炊。”

80) 「古墓吟」，“誰家古墓田，草滿乳羊眠。物理自無定，曾孫非不賢。舉頭見餘照，低頭生暮煙。歸來兒女競，不語坐窗前。”

81) 5연 읊시 「題徐松之詩」 2의 마지막 두 구절, “결 수레도 맞지 않았고, 세 집마저 없어졌구나. 副車皆不中, 三戶又淪亡.”에 단적으로 드러난다. 두 구절은 각각 장량이 滄海力士를 사주한 진시황 저격이 실패로 끝난 일과, 초나라 南公의 말 “초나라에 비록 세 집만 남았어도,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분명히 초나라 사람들일 것이다. 楚雖三戶, 亡秦必楚也.”에서 가져온 것이다.

밤 쥐는 제비 등지 구멍을 내었구나	昏鼠明穿社燕窠
훈풍이 어디 있어 문 앞에 불어오려나	豈有薰風來戶牖
피리 불고 노래할 장소도 다시 없어라	更無閑地坐笙歌
어떻게 글을 지어 천상에 보낼 건가	作書何計通天上
청황과 헤어진 뒤 눈물이 그치잖네	自別青皇墮淚多

「묻지 마라[休問]」

‘休問’ 두 글자로 제목을 삼고 시상을 열었다. 아예 물어보지도 마라,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는 절망감이 뼈째 드러나는 표현이다. 겉으로는 봄날이 지난 원림의 풍경을 말하고 있지만 의미가 거기에 그치지 않는, 우의로 가득한 시이다. 3, 4의 애벌레를 다 잡아먹은 胡蜂(말벌)과 파손되어 속이 다 보이는 燕窠(제비집)은 아주 자연스럽게 각각 胡族(淸)과 燕京(明)으로 읽힌다. 김성탄은 청나라가 북경에 정도한 1644년에 지은 시에서도, 제비를 연호하며 좋은 집을 두고 어디로 갔느냐며 탄식했는데, 이때 제비도 단지 새 제비로만 들리지 않는다.<sup>82)</sup> 이렇게 보면 원림은 천하이고, 애벌레는 백성이며, 밤 쥐는 부패 관료나 내란 세력 등으로 그 의미가 정리된다.

이제 다시 따스한 봄바람은 불어오지 않을 것이고, 편히 앉아 노래하고 피리 불만한 땅도 사라졌다.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5, 6구의 가장 정확한 번역이다. 마지막 두 구절은 의미 파악이 쉽지 않다. 靑皇은 木星의 아홉 靑帝를 통어하는 신격이다. 그런데 명나라의 국성 朱에는 木이 들어있고 淸은 金을 내세운 왕조인데, 金克木이라는 오행의 원리를 대응하면, 靑皇은 망한 명나라 또는 마지막 崇禎帝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힌다. 김성탄은 무력하게 눈물을 흘렸다. 세상은 망했고, 이는 김성탄의 불교 성향을 부추겼으니, 그는 산속에 들어가 승려가 되기를 회구했다.<sup>83)</sup> 실제 당시 쭉주우 지역엔 변발을 하느니 차라리 머리를 밀고 승려가 되기를 선택한 사인들이 많았다.<sup>84)</sup>

82) 『甲申秋興』 4. “제비야 제비야 넌 어디 갔느냐, 봄이 온들 다시 올 수 있을까. 화려한 들보와 문 눈에 그대로거늘, 작은 목숨 어디서 날고 있느냐[燕子燕子汝竟去, 莫擬春至還來歸. 雕梁繡戶都在眼, 微命未知何處飛].”

83) 『有感, 呈諸同學』. “世事已如此, 吾儕不隱居. 幹戈隨地有, 禮樂與時疏. 學士宜飛錫, 深山可結廬. 還同林下宿, 晨夕論金書.”

84) 김성탄과 교유한 盛王贊(1588~1652)도 그러한 인물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청나라 조정은 신속 과감하게 문물을 정비했고 통치를 안정시켰다. 유교를 학습한 사인들은 관리를 지향했고, 포장만 달라진 봉건 질서에 어렵지 않게 적응해 나갔다. 청조는 명대의 제도를 준용하고 포용 정책을 펼쳐 다수 한인의 불만을 무마했다.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되지 않는 한, 사인들은 궁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상업이 발달했던 蘇州도, 출판으로 문명이 높았던 김성탄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성탄은 가족과 함께 가난했고, 화려한 허명에 걸맞은 실질 보상이 필요했다. 그러던 차에 생각 못한 작은 사건이 김성탄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1660년 정월, 북경에서 돌아온 사람이 황제가 자기 글을 극찬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다. 김성탄은 감읍했고, 북쪽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감격의 시 8수를 지었다.<sup>85)</sup> 김성탄은 금세라도 중앙의 관료가 되어 황제의 지척에서 일대의 성사를 맡을 것처럼 흥분했다.

조반에 따른다면 어디에 서나	借問隨班何處立
향로 북쪽 오르면 경연이겠지	香爐北上是經筵 (제4수 7, 8구)

만 권의 비장 도서 천록각 담당하고	萬卷秘書攤祿閣
한 시대 큰 사업은 문원에 맡겨지리	一朝大事屬文園 (제6수, 5, 6구)

여러 연구자는 이 전후로 김성탄의 내면에 출세의 포부와 함께, 막연한 기다림과 소식이 없는 데서 발생한 초조감과 낙망감이 자리 잡은 것으로 입을 모은다. 태평성대에 궁궐의 위엄을 표상하고, 바다에선 풍랑을 이겨내는 큰 배가 될 자질을 갖춘 채, 蟄龍을 품고 ‘그날’을 대망하는 소나무를 읊은 시,<sup>86)</sup> 재색을 갖추었지만 시골에 버려진 시골 여인의 탄식을 그린 시는,<sup>87)</sup> 출세의 포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분에는 금방이라도 칙지가 내려올 것 같았지만, 달콤한 백일몽은 오래가지 않았다. 김성탄은 금생에는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자각하고 후생을 기약했다. 아래는 韋應物의 「長安遇馮著」에서 시상을 빌려 지은 것으로, 후반 3구는 화자를 대신하

85) 「春感八首, 有序」. “順治庚子正月, 邵子蘭雪從都門歸, 口述皇上見某批才子書, 論詞臣, 此是古文高手, 莫以時文眼看他等語, 家兄長文具爲某道. 某感而淚下, 因北向叩首敬賦.”

86) 「詠松」. 青桐黑石透深泉, 鳳翅親鱗到碧天. 后土生時無萬物, 秦皇封後有千年. 聖朝堂殿須喬木, 陸海風濤仗大船. 顧盼一朝逢匠石, 蟄龍肯向此中眠.“

87) 「村婦豔」. “西施盡住黃金屋, 泥壁蓬窗獨剩儂. 寄語梁間雙燕子, 天涯可有好房籠.”

는 객의 답변이다.

손님이 동방에서 오시었는데	客從東方來
낯빛은 기쁨으로 가득 차있네	容顏一何喜
기이한 보배라도 지니셨나요	借問持貨無
가슴에 교룡을 품고 있지요	懷抱蛟龍子
금생에는 제 값에 팔지 못하니	今世不得價
다음 생 저자에다 두어야 하리	來生定當市

「동방에서 온 손님[客從東方來]」

1661년 봄 陳濟生(1618~1664)이 아들을 낳았다. 마침 민간에서 관음보살의 생일로 알려진 2월 19일이었다. 같은 날 강희제의 등극을 알리는 詔書가 蘇州府에 도착했다. 김성탄은 마음을 다해 축시를 지어 주었다.<sup>88)</sup>

태복이 아들을 접지한 날이	泰卜占熊日
하늘에서 코끼리 내려온 때라	中天降象時
살구꽃은 상원에 잇달아 피고	杏花連上苑
버들가지 물병에 한들거렸네	楊柳媚軍持
선조의 난대업이 끊이지 않고	不拔蘭台業
아버지의 포부도 온전하리라	無邪太僕思
바람과 구름까지 서로 구하니	風雲有相濟
강희제 등극 조서 선포되었네	新詔布康熙

수련은 진제생의 아들이 태어난 일과 관음보살이 코끼리를 타고 내려온 일을 나란히 말했다. 함련은 불가의 경사를 그렸고, 미련은 찌썩 집안의 번성을 축원했다. 蘭台와 太僕은 태어난 아이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직명이다. 여기에 새 황제가

88) 「陳定齋太僕, 辛丑春初, 索得雄, 正值普門誕日, 是日郡縣恭接今上登極詔書適至, 賦詩紀瑞 文莊藏書悉在潛確居, 故五有“不拔”之句」. 文莊은 陳濟生의 호로 보인다. 潛確居는 그의 부친 陳仁錫(1581-1636)의 호이다. 그가 國子監 벼슬을 했기에 蘭臺 운운한 것이다.

등극하는 경사가 겹쳤다. 風雲相濟는 『주역』, 『風山漸』의 괘사 중 하나로, 군주와 신하가 서로 잘 모이는 형상을 나타낸다. 새 황제와 진씨 집안이 앞으로 힘을 모아 성세를 만들어가리라는 축원을 담은 것이다. 김성탄은 매우 기꺼운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축하했다. 陳濟生은 승려 靈巖으로부터, 아들을 얻었으니 살생을 해서 안 된다는 法旨를 받았다. 이에 감동한 김성탄은 합장하는 마음으로 한 수의 시를 더 지어, 여러 부처와 사우들이 축복하는 새 생명 탄생의 경이로움을 노래했다.<sup>89)</sup>

김성탄이 哭廟한 2월 5일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이다. 그 직후 김성탄은 호구산에서 淮安의 친구들을 만나 놀았다. 이어 4월 26일 구금되었고, 남경에서 7월 13일 처형된다. 새 황제의 등극을 경하했지만 그 황제의 명에 의해 참형에 처해지고, 새 생명의 태어남에 불살생의 계율을 경건하게 노래했지만, 정작 자신은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빼앗긴 것이다. 상상조차 못 했던 일이다. 누군가 그 일생을 설계한 것이라면 김성탄의 삶은 완전한 비극이며, 360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서 그는 아이러니의 인물이 된다. 우리는 역사에서 종종 그런, 바로 뒤에 일어날 정반대의 결과도 알지 못한 채 어떤 주장을 호언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자기 말을 몸으로 부정하는, 아이러니의 인물들을 보곤 한다.

## 7. 맺음말

김성탄은 생전에도 풍문의 존재였고, 사후에는 그 양상이 더 심화되었다. 그의 이름 아래 출간된 책 두어 권 없는 집이 없었다. 그 정도로 그의 이름 석 자는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정작 누구도 그 실체를 알지 못했다. 김성탄의 실체에 대한 접근은 1930년대 와서야 시도되었고, 그의 실제 면모를 두루 밝힌 성과를 거둔 것은 21세기의 일이다. 이 글은 김성탄의 시집 『침음루시선』을 텍스트로 삼아, 시집의 전승 및 구성 등을 검토하고, 나아가 시에 담긴 시인의 내면과 행적을 조명한 결과이다. 입론의 토대로 그 생애의 대략을 먼저 서술하였다.<sup>90)</sup>

89) 『定齋敬奉靈巖法旨生子不得殺生，合十再賦』. “一子初生日，諸天共喜時。屍羅交口唱，殃(禾+屈)敬心持。師友蒙諄切，親朋盡諦思。上方借湯餅，香佛笑顏熙。” 제4구의 두 번째 글자는 김성탄이 만들어 쓴 것이다.

90) 김성탄의 생애에 대한 국내 논의로는 민혜란, 「김성탄 연구」(전남대 박사논문, 1993)의 25~55면:

텍스트 이해를 위해 『침음루시선』의 편찬과 전승 경위, 편제 등을 개관하였으며, 행적과 교유의 범위와 경향, 그리고 수사상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김성탄은 평생 쭈저우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불교에 깊이 경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은미한 눈길의 방향도 주목하였다. 김성탄은 작고 어린 것에 특별한 마음을 보냈는데, 이는 김성탄이 지녔던 교유의 정서이며, 소설과 희곡 비평에서 ‘작거나 보이지 않는 부분’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極微論 등으로 구현되었다. 역사 인물 중 維摩詰과 陶淵明을 동일시했다. 여기에는 각각 평등 不二의 대승 사상 지향, 왕조 교체기 遺民(또는 逸民)으로서의 시대 정체성이 함유되어 있다.

김성탄의 가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며, 가족 구성도 일부만이 밝혀져 있다. 그의 집안은 대단한 가문이 아니었던 데다, 그나마 김성탄 유년기에 몰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김성탄은 학숙을 다니며 글을 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한 추론이 제기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그중 일부를 수용하였다. 김성탄의 가족은 아내와 둘 이상의 딸, 그리고 아들로 구성되었다. 그의 여러 시에서는 가족에 대한 매우 애절한 마음이, 또 다정한 부부에 대한 염원이 느껴진다. 하지만 집은 늘 가난했고, 아내는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려 집에서는 신음이 그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서 자녀들의 글 읽는 소리가 집안을 울리며 명량한 기운을 자아내곤 했다. 김성탄은 독서인을 자처했고, 이런 태도는 딸 아들 가리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적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왕조 교체의 시대를 맞이하는 내면의 진동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김성탄은 명칭 교체의 외중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강렬한 遺逸 의식을 견지하였다. 이는 강남 지역에서도 특히 문화 예술의 중심 도시였던 쭈저우 지역 문사들의 경향이기도 했다. 하지만 좀처럼 생활고는 풀리지 않았고, 청조는 빠르게 사회를 안정시켜갔으며, 관료로 지향하는 뿌리 깊은 儒者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여기에 1660년 초 황제의 자기 글에 대한 언급 소식을 접하면서, 김성탄은 출세의 희망과 포부를 지니게 된다. 상호 모순의, 다소 흥분된 이중 감정에 빠진 것이다. 1661년 2월 김성탄은 지인 집 아기의 탄생과 새 황제의 등극을 경하하고 불살생의 계율을 축원했다. 하지만 그 즈음 끔찍한 재앙이 김성탄의 몸을 휘감고 있었다. 불과 두어 달 뒤 그는

조숙자, 『제육재자서상기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의 27~45면이 있다. 전자에서는 『침음루시선』의 시 일부를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2절의 논의는 두 논문의 성과 위에서 출발하되, 그 이후 중국의 연구 성과를 대폭 반영하였으며, 회의 정신의 발현 등을 추가하였다.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그로부터 석 달도 되지 않아 국법에 의해 처형되고 만다. 그 명을 내린 사람은 자신이 마음을 다해 칭송했던 황제였으니, 그야말로 아이러니의 희생자라 아니 할 수 없다.

김성탄은 오랫동안 풍문 속 환상이나 서책의 저자인 우상으로 존재해왔다. 이 글은 풍문의 안개와 문자의 죽림을 지나 일상의 생활인 김성탄을 만나, 숨 쉬고 말하며 웃고 웃는 그의 두세 면모를 되살려본 것이다. 이 논의로 김성탄, 그의 비평, 나아가 그가 영향을 끼친 한국문학에 대한 한 치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孫中旺 撰, 『金聖嘆研究資料匯編』, 廣陵書社, 2007.
- 陸 林 撰, 『金聖嘆全集』(6책), 鳳凰出版社, 2008.
- 鄧 瑞, 『金聖嘆詩學精神與創作實踐交叉研究』, 遼寧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8.
- 盧 潔, 「論金聖嘆詩歌中的陶淵明」, 『江蘇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9.
- \_\_\_\_\_, 「金聖嘆詩歌中的魏晉人物探析」, 『陝西理工大學學報』, 제38권 제1기, 2020.
- 劉世德, 「金聖嘆的生年」, 『文匯報』, 1962.
- 劉勇剛, 「金聖嘆的詩歌創作」, 『懷化師專學報』, 21권 1기, 2002.
- 劉元蓉·林棣, 『金聖嘆傳奇』, 黃山書社, 1991.
- 劉仲華, 「清初學者劉獻廷의 游歷與交友」, 『唐都學刊』, 제29권 제5기, 2013.
- 劉春景, 「論金聖嘆對李商隱詩的接受」, 『江蘇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20.
- 陸 林, 『金聖嘆史實研究』, 인민문학출판사, 2015.
- 陳 飛, 「金聖嘆早年事探測 - 相關詩文讀解」, 『화남사범대학보』 2016년 제6기.
- \_\_\_\_\_, 「金聖嘆幼年家難探測 - 相關詩文讀解」, 『상해사범대학보』 제46권 제5기, 2017.
- \_\_\_\_\_, 「關於金聖嘆與“哭廟案”的兩點辨正」, 『華南師範大學學報』, 2018년 제6기.
- 李姝雯, 「金人瑞《沈吟樓詩選》詩歌流傳與編訂過程考略」, 『文教資料』 2014년 제 11기.
- 민혜란, 「김성탄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艾 軍, 「金聖嘆詩風初探」, 『贛南師範學院學報』 제 5기, 1990.
- 楊基寧, 「金聖嘆的傳奇人生」, 『同舟共進』, 2021.
- 吳子林, 「金聖嘆與吳中文化」, 『浙江學刊』, 2005.5.
- 吳正嵐, 『金聖嘆評傳』, 南京大學出版社, 2006.
- \_\_\_\_\_, 「金聖嘆與明清之際江南佛學 - 以“月愛三昧”說爲視角」, 『中山大學學報』, 2022.
- 윤지양, 「江天閣鎖夏綠 所載 李載運의 문장에 나타나는 金聖嘆에 대한 인식」, 『대동한문학』 44, 대동한문학 회 2015.
- 張小芳·陸林, 『話說金聖嘆』, 江蘇人民出版社, 2011.
- 丁利榮, 「金聖嘆美學思想研究」, 武漢大 박사학위논문, 2007.
- 정선희, 「조선후기 소설비평론과 문예미학의 발전 - 金聖嘆의 小說評批本 독서와 관련하여 -」, 『어문연구』 3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 조수동 국역, 『유미경』, 지만지, 2008.
- 조숙자, 「체육재자서서상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 陳 蕾, 「論金聖嘆的扶乩降神活動及其影響」,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20.
- 陳 飛, 『金聖嘆』, 知書房出版社, 1993.
- 陳 洪, 『金聖嘆傳』, 人民文學出版社, 2012.
- 陳登原, 『金聖嘆傳』, 香港太平書局, 1935.
- 韓 梅, 「朝鮮後期 金聖嘆 文學批評의 受容樣相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2.
- 洪克夷, 「從‘沈吟樓詩選’看金聖嘆」, 『杭州大學學報』 11권 1기, 1981.

## Poems of Jin Shengtān, Shengtān in Poems

Lee, Seungsu\* · Gao, Bo\*\*

This study analyzed the transmission and structure of poetical works with *Chenyinlou Poetry Collection*, the poetical works of Jin Shengtān as the texts, and furthermore, examined the inside and achievements of the poet contained in his poems.

As the basis of argument, the life of Jin Shengtān was summarized. For understanding the text, publication, transmission and structure of *Chenyinlou Poetry Collection* were outlined and his achievement, scope and tendency of social intercourse and rhetorical features were investigated.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d that Jin Shengtān didn't leave Suzhou(蘇州) in his whole life and sincerely devoted himself on Buddhism. His subtle viewpoints were also focused on. Jin Shengtān expressed special attention on small and weak existence. It's the unique emotion of Jin Shengtān and embodied as the aesthetics of small existence emphasizing efficiency of 'small or invisible sings' in the fictions and play criticism. Yuma Hill(Vimala-kīrti) and Tao Yuanming, historical figures, were considered as being the same. Such consideration implies pursuit of Mahayana Buddhism insisting non-duality of equality and the identity of people from a collapsed country in the transition period of dynasties.

Jin Shengtān didn't come from a prosperous family. It was estimated that his family was destroyed during his childhood. Jin Shengtān had a wife, more than two daughters and a son. While his love for his family was very unique, he was always

---

\* Professor of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 Master's course 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poor and anxiety never stopped because his wife suffered from diseases for a long time. Even in spite of such anxiety in his family, the voice of his children reading books resonated in his house and created pleasant mood. Jin Shengtan posed as the reader and such attitude was also applied to children whether a child was a girl or a boy. The inner vibration facing the transition period of dynasties was also examined. Jin Shengtan maintained the intensive awareness of a person from a collapsed country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from Ming to Qing dynasty, but he got to aspire going into the government service and governing a country in his latter years due to several reasons. However, he became the victim of irony as being executed by the order of the emperor he extoll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

Jin Shengtan was the icon in the fantasy due to rumors or as the author of books for a long time. This study eliminated the obscure rumors and bamboo grove of words and restored the actual aspects of Jin Shengtan who breathed, spoke, laughed and smiled as meeting him in a daily life.

Keywords : Jin Shengtan(金聖嘆), *Chenyinlou Poetry Collection*(『沈吟樓詩選』),  
Skepticism, Mindfulness on Small Existence, Yuma Hill(Vimala-kīrti),  
Awareness of a Person from a Collapsed Country